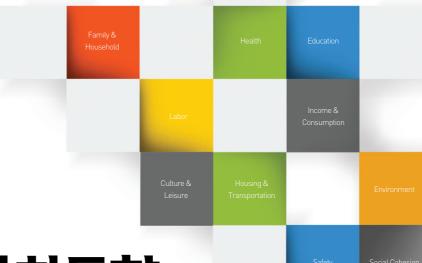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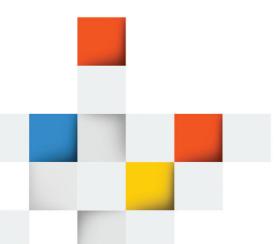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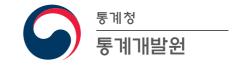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0  $\frac{2020}{\text{http://sri.kostat.go.kr}}$ 





#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김경근 (고려대학교)

- 특성화고 졸업자의 진학률은 2009년 이후 계속 하락하다가 2017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 최근 모든 교육단계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상승 하고 있고, 사교육 참여율 상승은 저소득층에서 좀 더 두드러졌다.
- 모든 교육단계에서 학급당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감소세가 고등학교에서 좀 더 가팔라 2019년에는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밑돌게 되었다.
- 대졸 이상 집단의 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교육 수준 간 상대적 임금 수준 격차는 최근 점차 개선되고 있다.

교육은 사회의 유지 및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부존자원이 빈약해 인적자원에 크게 의존해야 했기때문에 사회의 유지 및 발전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좀더 도드라진 편이었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많은 사람을 무지와 문맹에서 자유롭게 했다. 이에 힘입어 민주주의가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가능했다. 개발연대에 접어들면서 교육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인력을 공급하는 데도 무척 성공적이었다.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경제성장이 급속

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광범한 사회이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사회에서 계층상승 가능성이 갈수록 희박해진다는 인식이 폭넓게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 교육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 인식이다. 즉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계층이동에 기여하지 못하고부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한국 교육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교육에서 전개되고 있는 주요 변화를 교육기회, 교육의 조건과 과정, 교육 효과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교육기회 영역에서는 교육단계별 취학률, 진학률 및 평생학습 참여율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교육단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 참여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교육의 조건과 과정 영역에서는 교육단계별로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를 분석하고 학급당 학생수의 변화 추이도 고찰할 것이다. 끝으로 교육효과 영역에서는 중등교육 단계의 기초학력 미달 수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성취도에서 드러난 한국 학생의 학업탄력성, 교육수준별 상대적 월평균 임금 수준 변화 추이를 살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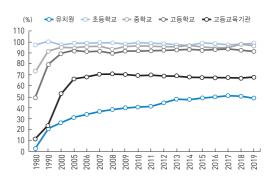
# 교육기회

사람들이 교육기회를 향유한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취학률, 진학률, 평생학습 참 여율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사교육이 학업성취 나 교육성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계 층별 사교육 참여율도 교육기회 영역에서 자주 다루어진다. 여기에서는 교육단계별 취학률 및 진학률, 평생학습 참여율,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람들이 교육기회를 향유한 정도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는 취학률을 들 수 있다. 취학률은 각 교육단계별로 취학 적령 인구 가운데실제 해당 교육단계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비율을 가리킨다. [그림 IV-1]에는 교육단계별로 1980년 이후의 취학률이 나타나 있다. 초등학교취학률은 이미 1980년에 97.7%로 실질적으로완전 취학 수준에 다다른 후 1990년에는 100.5%까지 치솟기도 했는데, 2019년 현재 98.7%로 보고되었다. 1990년에 일시적으로 초등학교취학률이 100%를 초과한 것은 취학 적령기(6-11세) 이전이나 이후에 취학한 학생들이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중학교 취학률은 1980년 73.3%였고 1990년에 91.6%가 되었다가 2011년에는 96.7%로 높아졌다. 이후 취학률이 다소간 조정을 거치면서 2016년과 2017년에 94.3%로 낮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큰 폭의 반등이 이루어져 98.0%로 역사상 고점에 도달했다가 2019년에는 96.7%

#### [그림 Ⅳ-1] 교육단계별 취학률, 1980-2019



- 주: 1) 취학률=(취학 적령의 재적 학생수÷취학 적령 인구)×100.
  - 2) 취학 적령은 유치원의 경우 만 3-5세, 초등학교는 만 6-11세, 중학교는 만 12-14세, 고등학교는 만 15-17세, 고등교육기관은 만 18-21세임.
  - 3) 취학 적령 인구는 장래인구추계(2019)를 기준으로 하였음(2017년 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8년 이후는 잠정추계로 다음 인구추계시 변동 될 수 있음).
  - 4) 고등교육기관에는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이 포함됨.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 로 다시 약간 하락한 상태이다.

고등학교 취학률의 경우 1980년 48.8%로 당시 만 15-17세 청소년의 과반수가 취학 기회를 얻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980년대에 교육기회가 크게 확대되어 1990년에는 취학률이 79.4%로 높아졌다. 이 같은 상승세는 그 후로도계속 이어져 2017년에는 93.8%에 다다랐다. 2019년 현재 고등학교 취학률은 91.3%로 2017년에 비해 2.5% 낮은 것으로 보고됐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1980년 11.4%에 불과했다. 하지만 1981년 시행된 졸업정원제와 1995년 도입된 대학설립준칙주의의 영향으로 2000년에는 취학률이 52.5%로 크게 높아진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그 후로도 상승세를 지속해 2008년 70.6%로 정점에 다다른 후 최근까지 완

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현재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67.8%로 보고됐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취원율은 다른 교육단계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유치원 취원율은 1980년 2,8%에 그쳤지만 2005년에 30%를 넘어섰고 2010년에는 40%를 상회하였다. 그리고 2017년에는 처음으로 50%를 넘어 50,8%를 기록했다.하지만 그 뒤로는 유치원 취원율이 다소 하락해 2019년 현재 48,7%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미취학 아동 중 상당수는 어린이 집에 다닌다. 따라서 유치원 취원율이 낮다고 해서 많은 아동이 조기교육에서 소외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한국의 만 3세와 만 4세의 취학률은 각각 92.3%, 93.8%로 OECD 평균인 78.1%, 88.2%보다 높았다(OECD,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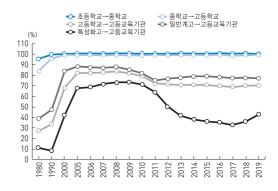
진학률도 교육기회 향유 수준을 보여주는 대 표적인 지표로 분류된다. 진학률은 교육단계별 로 전체 졸업생 가운데 상급 학교에 진학한 학생 의 비율로 측정한다. 진학률은 노동시장 상황이 나 입시제도 변화 등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 IV-2]에는 교육단계별 진학률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초등학교 졸업자의 중학교 진학률은 1990년 이후 실질적으로 100%에 가깝다.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률도 2000년 이후 줄곧 99.6%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고등학교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1980년 27.2%에 불과했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비약적으

로 높아져 2000년에는 68% 수준까지 상승했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이후로도 계속 상승해 2008년 83.8%로 정점에 다다랐다가 완만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2019년 현재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70.4%이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특히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넘어갈 때 크게 하락했는데, 이는 진학률을 좀 더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2011년부터 조사기준을 4월 1일 현재 대학등록자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2010년까지는 매년 2월 고등학교 졸업 당시 대학 합격자를 기준으로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을 산출했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완만하나마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 것은 무엇보 다 대학에 진학하는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졸

[그림 Ⅳ-2] 교육단계별 진학률, 1980-2019



- 주: 1) 진학률=(당해 연도 졸업자 중 진학자÷당해 연도 졸업자)×100.
  - 2) 중학교 과정은 중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기타학교가 포함됨.
  - 3) 고등학교 과정은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기타학교가 포함됨.
  - 4) 고등교육기관 진학자에는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 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가 포함됨(2005년부터 국외진학자 포함).
  - 5) 일반계·특성화고 진학자는 2011년 이후는 대학 등록자 기준, 2011년 이전은 대학 합격자 기준임(전체 고등학교 진학률은 대학 등록자 기준 으로 보정한 수치임).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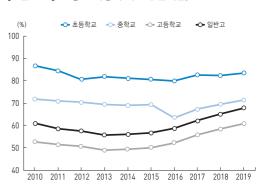
업자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실 일반계고 졸업자의 진학률은 2011년 75.2%로 저점을 기 록한 후 다시 조금씩 상승하여 2015년 78.9%까 지 높아졌다가 2019년 현재 77.0%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특성화고 졸업자의 진학률은 2009 년 73.5%로 정점에 도달한 후 큰 폭으로 하락 하여 2017년에는 32.8%로 낮아졌다가 최근 다 시 반등하여 2019년 현재 42.5%로 나타났다. 2004년 특성화고 특별전형이 도입된 후 학생들 이 대학에 좀 더 쉽게 진학하기 위해 특성화고 를 선택하면서 일부 특성화고 졸업자의 진학률 이 90%에 달하는 등 특성화고 운영 목적이 심 각하게 변질되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이에 정부 가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대폭 축소하고 '재직자 특별전형'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특성화고 졸 업자의 진학률이 크게 낮아지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의 교과 성적이나 대학 진학 성과가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이나 활용 정 도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잘 알 려진 사실이다. 이는 교육기회 영역의 주요 지 표 가운데 하나로 사교육 참여율을 반드시 논 의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림 IV-3]에는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가 나타나 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2016년 까지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2017년부터 상승세를 보인다.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상승세가 좀 더 가파른 편이다.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크게 낮아진

것은 자유학기제 도입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고등학생(특히 일반고)의 경우 2013년까지는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했지만 2014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후 최근 상승세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2019년 현재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 (83.5%)이 가장 높고, 중학생(71.4%), 고등학생 (61.0%)이 뒤를 이었다.

#### [그림 Ⅳ-3]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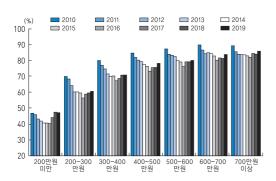
주: 1) 사교육 참여율은 전체 학생 중 유료로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인.

출처: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각 연도.

사교육 참여율은 부모의 경제력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그림 IV-4]는 사교육 참여율과 부모 경제력 간 관계를 보여주는데, 사교육 참여율이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그림에는 모든 계층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점도 잘 드러나는데, 사교육 참여율의 상승폭은 저소득층에서 좀 더 두드러졌다. 특히 소득수준 200만원미만 집단의 경우 2010년 사교육 참여율이 46.6%였는데, 2019년에는 47.0%로 유일하게

2010년 대비 2019년에 더 높은 사교육 참여율을 보이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9년 현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집단의 사교육 참여율은 200-300만원 집단에 비해서도 13.4%p 낮았다.

## [그림 Ⅳ-4]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2010-2019



주:1) 사교육 참여율은 전체 학생 중 유료로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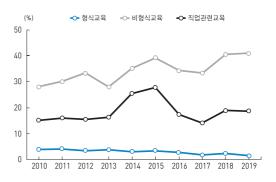
2) 소득수준은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임. 출처: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식과 기술의 급속한 변화, 고용 안정성의 저하, '100세 시대'의 도래에 따라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 학습자가 충분한 교육기회를 누리고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해 평생학습 참여율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평생학습은 크게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직업 관련 교육으로 나 눌 수 있는데, [그림 IV-5]는 지난 10년간의 평 생학습 참여율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평생학습 가운데 졸업장 또는 학위 취득과 관련된 형식교육 참여율은 절대 수준 자체가 낮 고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형식교육 참여율은 2010년 3.9%였지만 2019년에 1.5%로 낮아졌다. 정규교육을 통해 원하는만큼 교육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까닭에 앞으로도 평생학습에서 형식교육 참여율은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력이나 학위 인증과 무관한 비형식교육에 대한 수요는 다소의 부침을 보이면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2010년 28.2%에 불과했지만 2012년 33.1%로 높아졌다가 2013년에는 28% 수준으로 떨어진다. 2014년부터 반등하여 2015년 39.1%에 다다른 후 다시 하락하기 시작해 2017년 33.4%로 저점을 확인하고 상승세로 전환하여 2019년 현재 40.9%를 기록하고 있다.

#### [그림 Ⅳ-5] 평생학습 참여율, 2010-2019



- 주: 1) 평생학습 참여율은 만 25-64세 이상 성인인구 중 형식교육 또는 비형식교육, 직업 관련 교육에 참여한 인구의 비율임.
  - 2) 형식교육은 평생학습 중에서 학력인정체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졸업장이나 학위의 취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교육임.
  - 3) 비형식교육은 형식교육과 동일하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화된 교수과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학교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며 국가의 학력 또는 학위 인증을 받지 않는 교육임.
- 4) 직업 관련 교육은 비형식교육 중 취·창업이나 재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증 취득 교육, 외국어 학습 및 직장에서의 직무교육을 의미함.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각 연도.







직업 관련 교육은 비형식교육 중 취업, 창업 또는 재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증 취득 교육 이나 직장에서의 직무교육을 가리킨다. 따라서 큰 틀에서 직업 관련 교육 참여율은 비형식교육 참여율과 유사하게 움직인다. 실제로 직업 관련 교육 참여율은 2010년 15.1%에서 점차 상승하 여 2015년 27.7%로 고점을 기록한 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7년 14.1%에 다다른 다음 다시 반 등하여 2019년 현재 18.7%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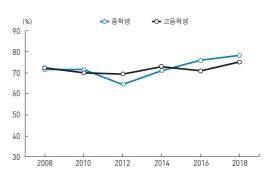
# 교육의 조건과 과정

교육의 조건과 과정 영역의 지표들은 크게 학생수준과 학교수준으로 나뉜다. 대표적인 학생수준 지표로는 학습시간, 학교만족도, 교우관계 만족도, 교사관계 만족도 등이 있고, 학교수준 지표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중·고등학생의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 만족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중심으로 교육의조건과 과정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삶에서 교우관계는 학교에서 맺는 인간관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여러 가지 정의적 특성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일반적으로 중·고등학생의 경우 친구들과 만족스럽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학교생활 적응도 더 수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교우관계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향이 있다.

[그림 IV-6]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우관계 만족도가 제시되어 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교우관계 만족도에서 두드러진 차이는 없으며,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교우관계 만족도가좀 더 안정적 추이를 보인다. 중학생의 교우관계 만족도는 2012년에 64.6%로 저점에 다다른 후꾸준히 상승하여 2016년부터는 고등학생의 교우관계 만족도를 웃돌고 있다. 2018년 현재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우관계 만족도는 각각 78.3%, 75.1%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3.2%p 높다.

[그림 IV-6] 중·고등학생 교우관계 만족도, 200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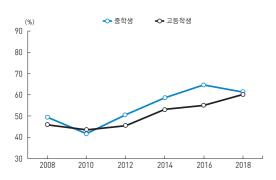
주: 1) 교우관계 만족도는 현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교우 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2) 2012년도부터 조사대상이 만 13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나,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만 15세 이상만 분석대상에 포학하였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교사관계 만족도는 교우관계 만족도와 함께 중·고등학생의 학교만족도를 크게 좌우하며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림 IV -7]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사관계 만족도를 보여준다. 여기서 알 수 있듯 중·고등학생의 교사관계 만족도는 2010년 이후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두드러진다. 하지만 전반적인 만족도는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높은 편이다. 중학생 과 고등학생 간 교사관계 만족도 차이는 2016년 에 가장 커서 중학생 64.6%, 고등학생 55.0%로 9.6%p의 격차를 보였다. 하지만 2018년에 중학 생의 교사관계 만족도가 크게 하락하면서 중학 생 61.2%, 고등학생 60.1%로 두 집단 간 차이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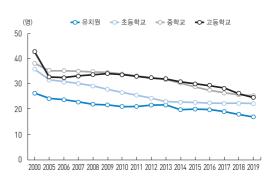
### [그림 N-7] 중·고등학생 교사관계 만족도, 2008-2018



주: 1) 교사관계 만족도는 현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교사 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2) 2012년도부터 조사대상이 만 13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나,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만 15세 이상만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Ⅳ-8]에는 교육단계별로 학급당 학생수가 제시되어 있다. 학급당 학생수는 교사와학생 간 상호작용 정도, 수업지도의 질, 교육환경의 쾌적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모든 교육단계에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감소세는 2013년까지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두드러졌으나 최근에는 고등학교에서

# [그림 Ⅳ-8] 교육단계별 학급당 학생 수, 2000-2019



주: 1) 학급당 학생 수=재적학생 수÷학급 수.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좀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까지는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2011년 이후로는 고등학교의학급당학생 수가 가장 많다가 2019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중학교의학급당학생 수를 밑돌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유치원은 일관되게 가장낮은 수준의학급당학생 수를 유지했다. 2019년현재 교육단계별학급당학생 수는 유치원 17.0명, 초등학교 22.2명, 중학교 25.1명, 고등학교 24.5명으로 나타났다.

한때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나라로 정평이 나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모든 교육단계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 이제는 사정이 상당히 달라졌다. [그림 IV - 9]에는 2005년과 2018년 두 시점에서 산출한 한국과 OECD 주요 국가의 학급당 학생 수가 제시되어 있다. 2005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가 비교 대상 국가보다 훨씬 더 많았다. 하지만 2018년에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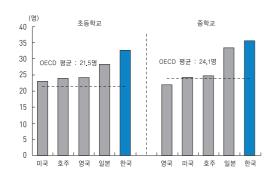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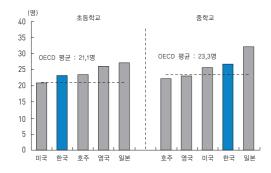
이 크게 달라졌다. 우선 초등학교의 경우 한국의학급당 학생 수는 23.1명으로 미국(20.9명)보다는 많지만, 일본(27.2명), 영국(26.0명), 호주(23.5명)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OECD 평균(21.1명)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중학교는 초등학교보다 사정이 좀 더 열악해 일본(32.1명)을 제외하면 한국(26.7명)보다 학급당학생수가 많은 나라를 찾기 힘들다. 2018년 현재한국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26.7명)는 OECD평균(23.3명)을 크게 초과한 상태이다.

[그림 Ⅳ-9] OECD 주요 국가의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2005, 2018

#### 1) 2005년



#### 2) 2018년



주: 1) 학급당 학생 수=재적학생 수÷학급 수.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7, 2020.

# 교육효과

교육효과는 다양한 지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 정도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를 통해 측정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의 인지적 성취수준과 관련이 있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및 PISA 수학 성취도를 통해 파악된 학업탄력성을 고찰한 후 교육수준별 상대적 월평균 임금 수준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Ⅳ-1〉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로 분류된 중·고등학생의 비율을 보여준다. 기초학력 미달은 다음 단계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별도의 보충교육이 요구되는수준의 학력을 가리키는데, 대개 100점 만점에 20점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분류한다. 기초학력

〈표 IV-1〉 중·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2012-2019

(9

						(%)
연도 -	중학교(3학년)			고등학교(2학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2012	2.2	3.0	1.4	3.0	3.7	2.1
2013	3.3	4.3	2.0	3.4	4.2	2.4
2014	3.7	5.1	2.2	4.2	5.4	2.9
2015	3.5	4.9	2.0	4.2	5.7	2.6
2016	3.6	4.9	2.2	4.5	6.0	3.0
2017	4.3	5.5	3.0	6.3	8.2	4.4
2018	6.9	8.7	5.0	6.7	8.6	4.6
2019	6.4	8.2	4.4	5.5	6.8	4.2

- 주: 1)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국어, 영어, 수학 등 세 과목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 2) 2017년도 이후 평가 결과는 3% 표본 대상 평가 결과임.
  - 3) 2017년도 통계치는 2018, 2019년도 보도자료에서 발표된 값으로 수정하였음.

출처: 교육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도자료, 각 연도.

미달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면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취도가 낮아지고 계층 간 교육격차도 심화하 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전체적으로 중학교(3학년)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2년 2,2%에서 2014년 3,7%까지 상승했다가 조정 기간을 거치고 2017년부터 다시 높아지기 시작해 2018년에 6.9%로 정점에 다다른 후 2019년 6.4%를 나타내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아도 시계열적 변화 추이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고, 이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예컨대 2012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남학생은 3,0%였고 여학생은 1,4%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6%p 높았다. 그런데 2019년에는 남학생 8,2%, 여학생 4,4%로 그 격차가 3,8%p로 확대되었다.

고등학교(2학년)의 실태 역시 중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체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2년 3.0% 수준에서 매년 조금씩 상승한 끝에 2018년 6.7%가 되었다가 2019년 5.5%로 낮아졌다. 성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변화 추이도 중학생의 경우와 상당히 비슷하다. 남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2년 3.7%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8년 8.6%에 다다랐다가 2019년 6.8%로 크게 낮아졌다. 여학생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2년 2.1%에서 점차 상승하여 2018년 4.6%가 되었다가 2019년 4.2%로 하락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태반은 저소득층 출신이다. 따라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급증은 한국

사회를 엄습한 양극화의 그림자로 볼 수도 있다. 원인이 어디에 있건 기초학력 미달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하면 계층 간 교육격차도 한층 심화할 수 밖에 없음을 유념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한국 학생들이 PISA나 TIMSS에서 매우 우수 한 성취수준을 보이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전반적으로 뛰어난 성취수준에도 불구하고 계층 간 교육격차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면 저 소득층 학생 가운데 역경을 극복하고 우수한 성 취수준에 도달하는 사례가 감소하고 있을 개연 성이 상당히 높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 해서는 학업탄력적 학생 비율의 변화 추이를 면 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IV-10]은 PISA 수학 성취도에서 학업탄력적 학생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학업탄력적 학생은 열악한 가정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정배경에서 기대되는 정도를훨씬 뛰어넘는 성취수준을 시현한 학생을 가리킨다. 이 지표는 학생의 가정배경이 상대적으로열악하면 그만큼 성취수준도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산출된다. 대개 사회경제적 배경이 하위 25%에 속한 학생들 가운데 그러한 열악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한 상태에서 추정한 학업성취의 잔차가 상위 25%에 속하는 학생을 학업탄력적학생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학업탄력적학생의 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열악한가정배경을 극복하고 기대 이상의 성취수준에도달한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고, 25% 미달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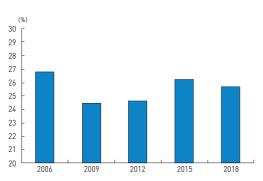






열악한 가정배경을 이겨내고 기대 이상의 성취 수준에 도달한 학생들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IV-10] PISA 수학 성취도 기준 한국 학생의 학업탄력성, 2006-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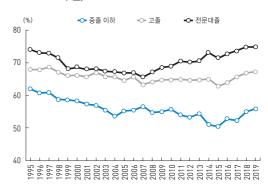


- 주: 1) 학업단력성은 한국 내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이 하위 25%인 고등학생 가운데 PISA 수학성취도가 상위 25% 이내에 포함된 학생의 비율로 측정함.
  - 2) 사회경제적 배경(ESCS)은 부모의 직업지위, 교육수준 및 보유자산의 합성지표임.
- 출처: OECD. PISA dataset, 2006-2018.

[그림 W-10]을 보면 PISA 수학 성취도에서 학업탄력적 학생의 비율은 2006년 26.8%였지만 2009년 24.5%, 2012년 24.6%로 상당히 큰폭으로 감소했다가 2015년 26.2%, 2018년 25.7%로 반등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2015년 이후 열악한 가정배경을 극복하고 기대 이상의 성취수준을 보인 학생들이 다소 늘어났음을 알수 있다. 2015년 이후 이루어진 자사고 선발 전형에서의 중학교 내신성적 제한 폐지나 공적 이전소득 증가를 통한 복지정책 강화가 이 같은 긍정적변화에 일정 정도 영향을 끼쳤을 공산이 크다 (김경근·심재휘, 2019).

마지막으로 [그림 IV-11]에는 교육수준별 상대 적 월평균 임금수준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대졸 이상 집단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의 임금 수 준은 최근 개선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대졸 이 상 집단 대비 중졸 이하 근로자의 상대적 월평균 임금 수준은 1995년 61.9%에 달했지만 이후 추세 적으로 꾸준히 낮아져 2015년에는 50.4% 수준까 지 떨어진다. 하지만 2016년부터 반등이 이루어져 2019년 현재 대졸 이상 집단 임금의 55.8%로 상 대적 월평균 임금 수준이 높아졌다. 고졸 근로자 는 대졸 이상 집단 대비 상대적 월평균 임금 수준 이 1995년에는 68.1%였지만 점차 상황이 나빠져 2015년에 63.0% 수준에서 저점을 확인한 후 2016년부터 반등을 보인다. 대졸 이상 집단 대비 고졸 근로자의 상대적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19

[그림 Ⅳ-11] 상용근로자의 교육수준별 상대적 월평균 임금 수준 1995-2019



- 주: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 및 비정규근로자를 표본으로 함(1998년 이전은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 2) 임금은 월급여액(정액급여+초괴급여)이며, 상여금(보너스) 등은 제외됨.
  - 3) 상대적 월평균 임금 수준은 대졸 이상 집단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학력 집단의 임금 수준을 비율(%)로 나타낸 것임.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년 현재 67.3%를 나타내고 있다. 전문대졸 근로자의 경우 대졸 이상 집단 대비 상대적 월평균 임금수준이 저점에 다다른 시기가 중졸 이하 또는 고졸 근로자에 비해 좀 더 빨랐다. 이 때문에 대졸이상 집단과의 상대적 임금 수준 격차 완화에서도 그만큼 더 성공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995년 전문대졸 근로자의 대졸 이상 집단대비 상대적 월평균 임금 수준은 74.1%에 달했지만 이후 점차 낮아져 2007년에는 65.7% 수준까지하락한다. 하지만 2008년 이후 꾸준히 반등이 이루어져 2019년 현재 74.9%로 높아져 있다. 그 결과 전문대졸 근로자는 대졸 이상 집단 대비 상대적 월평균 임금 수준이 1995년에 비해 2019년에 더 높은 수준에 다다른 유일한 집단이 되었다.

# 맺음말

최근 한국 교육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교육기회 영역의 지

표들은 대부분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교육단계에서 사교육 참여율 이 높아지고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에서 큰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다소 우려되는 대목이다. 교육의 조건과 과정 영역 지표들은 한국 사회의 교육환경이 날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 육효과 영역에서는 줄곧 심화하던 교육수준 간 상대적 임금 수준 격차가 최근 감소세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학업탄력성도 2015 년 이후 다소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열악한 가정배경을 극복하고 기대 이상의 성취수준에 도달한 학생들이 증가한 것이다. 다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계속 높아지다가 2019년에야 약간 낮아졌다. 공교육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학생들의 학습 권 보장과도 직결된 사안이거니와 미래세대가 장차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며 삶을 영위하 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적 토대를 제공하는 일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김경근·심재휘. 2019. "한국 고등학생의 학업탄력성 변화: 추이 및 근인." 교육사회학연구」, 29(4): 37-64. OECD. 2020. Education at a Glance 2020: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69096873-en.